리복시집

푸르른 의 목소리

연변인민출판사

✡리복시집✡

풀들의 목소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학성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小草的声音: 朝鲜文 / 李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6
ISBN 978-7-5449-0341-7

Ⅰ. 小… Ⅱ. 李… Ⅲ. 抒情诗-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 I22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090867号

小草的声音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 字数: 16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41-7 （民文）
版次: 2008年6月第1版 2008年6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3.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소학교시절에 교내시랑송대회에서 몇번 1등상을 수상한것이 계기로 되였던지 나는 시작품을 애독하게 되였으며 초중 1학년에 가서는 반주임선생님한테서 조선의《아동문학》잡지 몇년분을 빌어다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문학을 해나갈 여건이 내게는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서에 조선어학부를 써넣지 못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물리교원으로 배치받았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말기에《연변일보》사에 있던 김경석선생이 화룡에 오시여 시창작학습반을 꾸리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선뜻이 김경석선생을 찾아 나도 시문학을 애호하니 학습반에 받아들여달라고 청구하였는데 김선생의 승낙을 받았다. 이리하여 나는 시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도에 시 처녀작을《연변일보》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고중 3학년 물리교원으로서 승학지도에 바빠 시창작량은 적었으며 신문잡지에 발표한 시는 더욱 적었다. 그러다가 1993년도에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 전근되여 사업의 수요로 문학평론을 쓰고 발표하였는데 그 평론 역시 시평을 위주로 썼다. 2000년도에 정년퇴직한후 중병에 걸려 근 5년 동안은 글을 쓰지 못하였다. 신체가 호전되면서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이 시집을 묶

어내게 되였다. 시집에 넣은 시들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쓴 작품가운데서 뽑은것인데 그중 거의 절반은 2007년도에 써낸 시들이다.

나는 시를 쓰면서 시창작체험필기를 견지해왔다. 지금 나의 시각으로 보면 서정시의 핵심은 객관적대상물과 리상화된 대상물이 서로 융화된 하나의 융합물이다. 이 융합은 산수적화합이 아니라 유기적융합이며 이 융합물을 제대로 써내는 시야말로 시다운 시로 승화될수 있다. 융합물의 피와 살에는 객관적대상물과 리상적대상물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유기물이 빛발치며 이 유기물로 하여 형상이 승화되고 시가 날아옌다. 객관적대상물과 리상화된 대상물의 시적융합은 시쓰는 과정에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시쓰는 출발점으로 나타나며 시쓰는 과정에 써먹는 기교가 아니라 시를 쓸 때 잊지 말아야 할 창작원리로 된다. 시인은 유가적인 시적융합물을 제대로 찾아줠 때에는 시적령감이 떠오를수 있고 우수한 시편이 창조될 길이 열리지만 만약 유기적인 시적융합물을 제대로 찾아쥐지 못하면 시적령감은 나올수 없으며 시창작은 기로에서 헤매게 된다. 이 시집의 시들은 대부분이 이 융합물의 원리를 앞세우고 쓴것인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을것인바 비평가 여러분과 시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평을 바라는바이다.

리 복

2007년 12월 23일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차 례

머리말 ..... 리복 1

제1부 풀들의 경탄

산새의 울음 3
쓰러진 소나무 5
달려오는 쑥꽃 7
풀들의 목소리 9
억새풀의 눈물 11
노크소리 12
산울림 13
고추밭에서 14
왔다 가는 안개 16
풀들의 경탄 17
이슬의 생 18
민들레가 웁니다 19
풀들이 웃고있습니다 21

나리꽃 ····· 23
눈이 계속 내립니다 ····· 25
산이 운다 ····· 27

제2부 사라진 고향

산이 울고있다 ····· 31
사라진 고향마을 ····· 34
고향 떠나는 시각에 ····· 36
누님의 묘소앞에서 ····· 37
황폐한 고향 ····· 39
연필꽁다리 ····· 41
흐느끼는 땅 ····· 43
백사장의 모래알 ····· 45
떠오르는 아침해 ····· 47
락 엽 ····· 48
늦가을의 행객 ····· 49
밤 12시에 ····· 51
잘 가라 시인이여 ····· 53

제3부 인생의 추억

인생길 ····· 57
모교의 교실에 들어서니 ····· 59
나의 선언 ····· 61

저 비행기에 앉은것은 ····· 66
렬사비 ····· 68
풀밭에 떨어진 시험지 ····· 70
운명의 시각 ····· 72
그를 기다립니다 ····· 74
불쌍한 죽음 ····· 76
굴러온 돌 ····· 78
걸음마 ····· 80
더 쉬고 가라 ····· 82
바람의 모습 ····· 84
단간집에서 시를 쓴다 ····· 85
가슴치는 시가 나오지 못하는것은 ····· 87

제4부 기억속의 사랑

한생을 기다리는 사람 ····· 91
그녀를 그립니다 ····· 93
그 밤의 키스 ····· 95
하현달 ····· 97
라이라크의 모습 ····· 99
바람아 ····· 100
가장 가까운 거리 ····· 102
비내리는 창가에서 ····· 104
코스모스 ····· 106

서글픈 총각의 마음 ····· 108
달리는 편지 ····· 110
너의 미소 ····· 112
쌍가마의 십팔세 ····· 114

제5부 삶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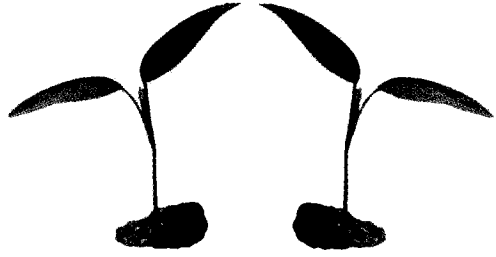
화장터의 연기 ····· 117
소낙비가 릉묘에 내립니다 ····· 119
비평가의 고뇌 ····· 121
시간은 하느님의 숨결 ····· 123
이라크의 상처 ····· 125
아버지의 도끼 ····· 126
창문이 닫깁니다 ····· 128
그 전우 보고싶다 ····· 130
어둡고 캄캄한 세관 ····· 132
시적비결 ····· 134
동갑의 령전앞에서 ····· 136
물새는 왜 우나 ····· 138
순간 ····· 139

시 평

시창작의 비결에 관하여 ····· 143

제 1 부

풀들의 경탄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산새의 울음

—청명절에

삐쫑삐쫑
산새가 애나게 우는 소리
들을수록 익숙한
누나를 찾는 울음소리

산새를 따라
산속에 가고가면
삐쫑삐쫑
누나가 예 있다는 울음

무덤앞에 엎드려
고이고이 절을 하니
삐쫑삐쫑
누가 왔다는 소리

누나는 "문화혁명"때 루명을 쓰고 세상을 떴고 누나의 무덤앞에 한 총각이 찾아와 슬피 울었다. 그 총각은 세상 뜬 "잡귀신"누나를 울어준것이 또 죄가 되여 석달만에 세상을 떴다.

삐쫑삐쫑
목메게 우는 소리는
누나의 슬픈 마음인가
찾아온 총각의 울음소린가

무덤에 곱게 인사하고
산소를 따라 내려오는데
갔다 오라 삐쫑—
자주 오라 삐쫑—

2007. 10. 13.

쓰러진 소나무

젊고 푸르른 소나무
잘났다 못났다 시비 많더니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원시림속에 소소리 자란
맵짠 맵시를 떨구고
아빠트 울안에 넘어졌다

주위의 건물들은 처량히
소나무의 생사를 지켜본다
뿌리는 한줄기도 안 마르고
이파리는 한오리도 안 시들거니
태양을 우러러보며
가로수들을 부러워하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몸을 일으키려 할뿐

가슴 아프게 보고봐도

소나무의 래일은 알수가 없다
제자리에서 후닥닥 소리치며
머리 털고 곧추 일어설것인가
아니면 시비 많은 도시를 버리고
소원없는 죽음으로 갈것인가?

2006. 10. 8.

달려오는 쑥꽃

뻐스 타고 씽씽 달리니
길옆의 쑥꽃들도 씽씽
새파란 처녀옷을 걸치고
차를 향해 달려오며 씽씽

청춘꿈을 안고 오는 쑥꽃
우릴 찾아 날아오고있다
씽씽 무슨 말 하자고 달려오느냐
씽씽 무슨 약속 맺자고 몰려오느냐

쑥꽃이 뻐스옆에 달려오니
말할 시간이란 순간밖에 안되누나
쑥꽃은 뻐스창문 두드리며 씽씽
출국한다 한마디 남기고 씽씽

뻐스가 고속도로 달리니
쑥꽃들은 뒤로 가며 씽씽

차창밖에 손을 내흔드니
마을처녀들 다 간다 씽씽

아, 마을의 귀한 쑥꽃들아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나
아쉬웁게 뒤로 가며 씽씽—
안타까이 물러가며 씽씽—

2007. 11. 27.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